

東南亞市場의 展望과 問題點

— Cement를 中心으로 —

金星産業株式會社

輸出入課長

丘 廷 煥

一般的으로 東南亞 輸出市場의 展望을 端的으로 表現하여 “Dead market”라고들 한다. 이러한 表現은 東南亞市場에 對한 悲觀的인 展望을 勿論 暗示하는 것으로 理解되나 제가 東南亞市場을 直接들어보고 全體的으로 느낀 것은 “Sleeping market”라고 좀 달리 表現하고 싶다. 왜냐하면 前者의 表現은 아주 絶望的인 意味가 있다면 後者의 表現은 樂觀을 不許하는 어려운 問題點이 많다 하더라도 希望을 걸어보고 싶은 아쉬움이 있기 때문이다. 卽 東南亞市場에 있어서는 現存의 市場에 對한 크기라든가 깊이 面에 있어서 期待한다는 것 보다 將來에 있어서의 “Potentiality”나 “Possibility”面에서 期待될 수 있다고 史料되기 때문이다. 特別 Cement市場이 經濟建設과 直結되는 限 더욱 東南亞市場의 “Potentiality”面에서 期待가 크다고 強調하고 싶다.

Cement에 對한 東南亞市場의 展望과 問題點을 論하는에는 東南亞諸國을 세 “Group”으로 區分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첫째 우리나라와 같이 Cement를 輸出하고 있는 輸出國들 卽 日本, 大韓, 比魯賓等과 같은 輸出競爭國들, 둘째 自國生産으로 充足하는 泰國과 같은 自給自足國들 셋째 自國生産으로는 充足할 수 없는 暹羅, 印度네시아와 같은 輸入國들 등으로 區分할 수 있다. 勿論 이러한 區分中에서 셋째의 輸入國들이 輸出市場이 Cement輸出市場이 될 수 있으며 이에 對한 檢討가 先行되어야 할 것이나 東南亞市場에 있어서의 Cement輸出은 무엇보다도 Cement

輸出競爭國間의 熾烈한 競爭의 隊列에서 어떻게 克服하느냐가 第一次의 問題이기 때문에 이에 對한 檢討가 先行되어야 할 것이다.

Cement輸出競爭國으로서는 日本, 大韓, 比魯賓, 마레이아, 印度, (중공등 公산국가는 論外로함)等を 들 수 있으며 이중에서도 特別 熾烈한 나라는 우리나라, 日本 및 大韓이다. 그러면서도 우리나라는 日本이나 大韓에 比하여 歷史的인 背景이나 地理的 立地條件等 여러가지 不利한 點에서 競爭을 하여야 한다.

1. Cement 輸出에 있어서의 歷史的인 背景

우리나라 Cement輸出은 1964年 對越南軍納으로부터 始作되어 1969年 越南 Saigon GVN國際入札에 參加하므로 부터 本格化하였다고 하여도 過言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Cement가 海外에 첫 선을 보인 것이 越南地域의 特殊市場이라고 할 수 있으며 印度네시아 市場에 昨年부터 조금씩 開拓하여가는 初創期에 不過하며 Cement Clinker도 昨年부터 輸出市場을 開拓하는 단계로서 一般的으로 우리나라의 Cement는 이제부터 日本이나 大韓에서 開拓한 Cement市場을 뒤따라 市場開拓을 하여야 하는 어려운 단계에 있다.

2. 地理的인 條件

우리나라는 東南亞市場을 中心으로 하여 볼때 가장 不利한 遠距離에 立地하였다는 點이다. 이

는 海上輸送問題와 關聯되는 것으로서 特히 Cement는 重量貨物 이라는 點을 考慮할때 重大한 問題點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이 問題는 다음의 輸送問題에서 같이 檢討하기로 한다.

3. 輸送問題

Cement輸送問題는 生産工場으로부터 船積港까지의 內陸輸送, 船積港의 항만 條件, 輸入國까지의 海上輸送, 더 나아가서는 荷役港의 항만 條件等을 考慮하여야 하지만 荷役港의 항만條件은 競爭國間的 同一條件下에서의 競爭이기 때문에 前記한 問題點에서 除外하여도 無妨하나 但 海上輸送을 爲한 傭船이 不利한 경우에는 이도 또한 不利한 要因이 될 수 있다. (即 日間 荷役 作業率이 적을 경우 海上運賃에 影響을 주기때 문임)

그리고 前記한 具體的인 問題點들은 輸送手段 및 設備과 輸送費用이라는 두가지 觀點에서 檢討되어야 할 것이다. 勿論 이들 두 要因은 相互 不可分의 關係가 있다는 點도 重要하지만 需要 市場의 要求에 따라 適時에 供給할 수 있는 能力問題이기도 하기 때문에 輸送手段과 設備은 輸送費用과 關聯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重要視 되어야 할 것이다.

以上에서 말한 輸送問題는 競爭國間的 FOB價格에 큰 差異가 없는 限 Cement輸送競爭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가장 重大한 要素라고 生覺되기 때문에 좀더 仔細히 우리나라의 現實情을 들어 說明코져한다. 첫째 內陸輸送과 항만條件의 問題로서 工場의 立地가 항만에 인접한 條件이라면 그 以上の 好條件은 없으나 Cement工場의 立地條件은 그 原料인 石灰石礦山을 中心으로 立地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항만과 바로 인접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우며 工場에 인접해 있는 항만을 開發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항만까지의 陸送手段을 強化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工場과 인접한 湄口항의 開發은 우리나라의 Cement輸出에 있어서 가장 긴급한 일이라 하겠다. 적어도 萬屯級 以上の 船舶이 自由로이 積안되어 船積作業이 하루속히 이루어져 울산 항이나 釜山 항까지 輸送하는 二重作業과 費用이 絶減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海上輸

送問題로서 우리나라는 海上輸送을 爲한 船舶事情이 어느 競爭國보다도 아주 不利한 立場에 있다. 이는 바로 海上運賃面에서 또한 不利한 立場에 있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으로서 前記한바와 같이 Cement는 重量貨物 이라는 點과 原來 高價貨物이 아니라는 點에서 海上運賃이 Cement輸出價格이 찾아하는 比重이 크기 때문에 海上運賃은 Cement輸出價格에 큰 影響을 미친다. 따라서 品質面에서 別差異가 없는 限 競爭의 要素中 價格은 絶對的인 것이다.

以上에서는 現在 Cement의 競爭國間的 爭競 要因을 檢討하였으나 다음에는 第二 Group으로서 自給自足國에 對한 檢討가 必要하다 왜냐하면 이들 自給自足國들도 自己들 需給計劃에 따르는 工場施設擴張에 따라 將來에는 輸出爭競國으로서 우리와 같은 隊列에서 競爭할수도 있고 反面輸出市場이 될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數年前만 하여도 Cement輸入國의 Group에 屬하였었지만 비올빈도 같은 立場에서 이제는 輸出國의 隊列에 올랐으며 現在泰國이 또한 將來에는 Cement輸出國으로서 登場할 것으로 思料된다.

泰國은 現在 四個의 Cement工場이 있으며 그中 3個는 Siam Cement Co에 屬하고 있으며 同社의 生産量의 全生産量의 4/6를 찾아하고 있다. 1967年 以前에는 인접 越南等에 輸出을 하였으나 數年間 供給보다 國內需要가 增加하여 1967年度에는 Cement總生産量 174萬屯, 需要는 176萬屯으로서 2萬屯의 供給不足 現狀이 일어나 이를 매우기 爲하여 輸出을 制限하고 오히려 Cement와 Clinker를 輸入하는 한편 앞으로 國內 Cement의 需要가 계속 18%以上 增加할 것으로 보고 Cement工場의 擴張 및 新設을 許可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投資獎勵法을 制定하여 이 法에 依하여 新設되는 工場에 對하여 여러가지 特典을 주고 있는 實情이다. Siam Cement Co에 依한 需要 및 生産推計와 3個會社에 對한 工場의 擴張 및 新設이 許可된 것을 보면 도표와 같다.

以上の 推計로 미루어 본다면 泰國도 앞으로는 Cement輸出國으로 登場할 것이 豫想된다.

더욱이 近來에와서 東南亞各國들이 經濟開發計劃에 따르는 經濟建設을 적극 推進하고 있는 現

表 1. 擴張 및 新設許可

구 분	1970	1971	備 考	회 사 명	수 량	비 고
국 내 수 요	281만kg	334만kg	수요 및	Siam Cement Co.	561만kg	확 장
생 산	315만kg	414만kg	생산추제	The Talapratham Cement Co.	595만kg	신 설
잉 여	34만kg	80만kg		The Siam City Cement Co.	594만kg	신 설

計 1,750천kg

段階에서 Cement의 需要가 急增하게 됨에 따라 Cement의 自給을 爲한 工場建設이 活氣를 띠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이러한 國家들에 對하여 Cement輸出을 미리 단념하라는 것은 아니고 自給體制가 確立될때까지는 短期的이나마 Cement輸出은 可能할 것으로 思想된다.

다음은 Cement의 唯一한 輸出市場이라고 할 수 있는 越南, 인도네시아, 보르네오를 中心으로한 群小島嶼, 싱가포르, 세이론 등을 重點적으로 檢討하기로 한다.

(1) 越 南

越南은 우리나라와 政治的 軍事的 및 經濟的 인 近밀한 유대를 갖치고 있는 好市場으로서 많은 輸出을 하고 있다. 이중 Cement도 昨年度에 상당한 輸出實績을 올렸으며 앞으로는 기대가 큰 시장인 반면에 輸出競爭이 熾烈한 市場이기도 하다.

現在 越南은 HATIEN Co.의 年間 30萬噸規模의 Cement工場과 30萬噸規模의 Clinker Grinding工場이 있으며 앞으로 30萬噸規模의 Clinker Grinding工場의 擴張計劃을 推進中에 있으나 自家生産能力은 40萬噸 내지 50萬噸정도인데 반하여 國內需要는 年間 100萬噸 以上으로서 年間 50萬噸 내지 60萬噸의 Cement를 輸入에 依存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現在 戰時中에 있는 越南이기 때문에 戰略物資로 的 Cement需要가 增加하고 있어 Cement의 對越軍納에 있어서도 展望이 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越南에 있어서 Cement의 一般輸出이나 軍納輸出의 展望이 需要面에 밝은 반면 輸出國間 特別 韓國 日本 대만, 軍納輸出의 경우는 OKINAWA, 間의 競爭이 熾烈하여 앞에서 言及한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어느 競爭國보다 不利한 立場에서 克服하여 나간다는 것은 그리 쉬운일이 아니다.

이러한 與件下에서 우리나라는 全 Cement業界

의 一致團結과 窓口一元化를 기하여 國際競爭力을 強化하고 政府의 積極的인 支援下에 對越南 Cement輸出에 邁進하여야 할 것이다.

(2) 인도네시아

一般的으로 인도네시아는 中立國이라는 政治的特徵으로 인하여 輸出商品의 競爭相對가 반드시 自由友邦國에 限定되어 있지 않은 特殊한 事情도 있으나 무궁한 地下資源, 1억2천만의 인구 세계 第5位의 廣大한 領土와 經濟建設意欲의 胎動等 諸般與件으로 보아 우리들의 좋은 市場이라고 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市場에 있어서의 競爭에는 몇가지 어려운 點이 있다. 첫째 價格條件, 둘째 代金決済條件 셋째 商品의 Brand name等인바 첫째 價格條件에 있어서 品質보다는 價格이 얼마나 低廉한가가 問題가 된다. 이러한 현상은 오스트라리아 市場에 있어서 價格보다도 品質面에 더 置重하다는 것과는 正反對 現상으로서 이는 勿論 그 나라의 國民所得과 깊은 關係가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 代金決済條件에 있어서는 外上條件을 要求하고 있다. 이들은 中立國을 표방하면서 東西兩陣營으로부터 1968 年末現在 約 30億弗의 負債를지고 있으면서도 계속 借款, 合作投資, 延拂等에 最大의 魅力을 느끼고 있는 實情이다. 셋째 品質問題로서 品質을 保障하는 基準으로서 그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商品의 Brand name이다. 같은 品質이라 하더라도 商標가 그들에게 잘 알려져 있으나 없느냐에 따라 價格의 差異가 생길뿐 아니라 品質이 아무리 우수하다 하더라도 商標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은 認定을 하여 주지 않는다. 이들은 오래동안의 植民政治下에 있었기 때문에 教育水準이 낮고 排他的인 性格이 오래동안의 습성이 되어버려 自己가 써보지 않은 商品에 대하여는 認定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市場에 우리들의 새로운 商品輸出市場을 開拓한다는 것은 그리

容易한 일이 아니다.

인도네시아에 있어서 Cement의 年間需要는 約 80萬噸으로서 自體生産能力은 50萬噸이고 約 30萬噸은 輸入에 依存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市場에 있어서의 Cement輸出競爭國은 日本 대만 비올빈 및 북괴등으로서 特히 日本産이 同市場에 널리 알려져있는 與件下에서 더욱이 前記한바 있는 同市場의 特殊한 어려운 事情等を 克服하고 昨年度에 일단 Cement進出은 成功하였다고 볼수있으며 同市場에서 우리나라 Cement가 널리 알려지고 認定만 받는다면 앞으로 同市場의 Cement輸出은 希望的으로 점차 增加시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

(3) 싱가포르

싱가폴은 우리가 잘 아는바와 같이 中繼貿易市場으로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싱가포르를 세계 5大港의 하나로 世界貿易의 中繼港으로서 國民所得水準은 亞細亞에서 第3位를 차지하고 있지만 中繼貿易으로 인한 國民經濟向上的 限界性을 克服하려고 經濟計劃을 樹立하여 動力, 水道施設, 깨스, 輸送과 通信等の 社會 間接資本形成에 重點을 두는 한편 住宅 敎育部門에도 많은 投資를 하고 있으며 또한 工業化的 標本이 되는 “쥬롱”工業團地에는 船船, 織物, 化學製品 合板, 타이어, Cement, 鐵鋼等を 生産하게 되었고 自動車組立, 精油産業을 이르고 있어 石油의 精製 및 分配의 主要한 中心地를 이루는등 工業化를 위한 활발한 經濟建設이 착착 進行되고 있다.

이러한 싱가포르를 오히려 Cement의 輸出市場이라기 보다 Cement Clinker輸出市場으로서의 比重이 더욱 크다. 싱가폴은 自體에서 Chinker 供給이 不可能하기 때문에 마레이시아, 일본 및 대만등과 合作投資를 하여 Cement Clinker Grinding mill을 세우고 前記 3個國으로 부터 Cement Clinker를 供給받고 있다. 現在 싱가포르에는 下

表 2. 싱가포르의 시멘트工業

工場名	合作投資國	年間生産力
Pan malaysia Cement Co	malaysia	30萬噸
Singapore Cement Co	Japan	30萬噸
Asia Cement Ce	TAIWAN	20萬噸

記의 3個 Grinding mill이 있으며 앞으로 年間 30萬噸規模의 新工場을 日本과 合作投資로 建設計劃이다.

이러한 與件下에서 싱가포르에 Clinker를 輸出한다는 것은 거의 不可能하다. 다만 Clinker 供給國인 마레이시아, 일본, 대만등의 Clinker供給事情에 따라 輸出이 可能하다. 即 前記 3個國에서 Clinker의 自體需要가 增加하여 싱가포르에 供給이 不可能할 경우에만 輸出이 可能하다. 이러한 與件下에서 作年度에 95千噸의 Cement Clinker를 輸出하였으며 向後에도 同市場確保에 계속 努力하여야 할 것이다.

4. 보르네오 세이론 및 群小도서

보르네오나 세이론 및 인근 군소도서들의 開發이 활발해짐에 따라 이곳에서의 Cement需要가 增加하고 있어 Cement輸出市場으로서 主目을 끌고 있다. 그러나 그때 그때의 需要單位가 小量일 뿐만 아니라 輸入地의 항만條件이나 倉庫施設등이 잘 開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뜰이나 地理的으로 不利한 位置에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同市場開拓에 어려운 問題點이 많다. 따라서 同市場을 開拓하려면 同地域에 Cement Silo 施設을 하고 同 Silo에 Cement를 保管하고 需要에 따라 수시로 供給할 수 있는 體制를 갖추는 것이 先行되어야 할 것으로 思料된다.

以上 東南亞市場을 中心으로 Cement輸出市場 開拓에 있어서 우리나라 自體의 國內問題, 輸出 競爭國間的 問題點 및 各輸出市場의 特殊性등을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說明하였으나 이 이외에도 많은 問題點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問題點을 인내와 努力으로서 꾸준히 克服해 나간다면 우리나라도 어느 競爭國 못지 않게 東南亞市場에 進出할 수 있다고 確信하는 바이며 또한 기필코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다. 特히 Cement는 外貨稼得率이 높다는 點에서 輸出을 極大化하여야 할 것이며 政府는 이를 위한 보다 積極的인 支援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